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2030년 착공”... 부산시가 답했다

시, 복합환승센터 조성 본격 추진 공식 선언 3월 11일, 관계기관 추진 방향 공유 보고회 100만 서명 운동 등 부산진구 노력에 ‘화답’

부산진구민의 숙원인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 선언으로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해 수차례 중앙정부와 소통하고 국회 방문 등을 통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KTX 경부선 정차를 요구해 온 부산진구민의 노력에 비로소 부산시가 화답한

셈이다. 부산시는 3월 11일 ‘부전역 복합 환승센터’ 조성 사업 본격 추진을 선언했다. 시는 이 사업을 광역교통망을 완성하는 핵심 시설로 보고, 지난 2월 기초 조사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이날 부산진구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이용 수요 예측과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토대로 최적의 환승 체계와 교통시설 배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용역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9년까지 민간사업자 선정과 세부 계획 수립을 완료한 뒤 2030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부전역을 단순한 환승 시설이 아닌 교통·상업·문화·컨벤션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생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철도로 단절됐던 시민공원·서면·부전역 일대 상권을 보행 동선으로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진구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가상)

가 구상하는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부산시·지역 사회 민간단체와 협력해 제5차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 등 국가계획이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고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미래창조과 미래혁신계(605-8682)

부산진구, 지역 최초 남자 소프트테니스팀 뒀다

엘리트 선수 6명 영입, 3월 13일 구청에서 창단식 전국체전 우승 목표, 지역 생활체육 저변 확산 기대

부산진구는 지역 대표 전문 체육팀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진구 직장운동경기부 소프트테니스팀을 공식 창단했다.

3월 13일 부산진구청에서 열린 창단식에는 구청 관계자, 시·구의원, 선수단 및 부산시체육회 등 지역 체육 관계자들이 참석해 부산진구 직장운동경기부 남자 소프트테니스팀 출범을 축하하고 응원을 보냈다.

이번에 창단한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도자 1명과 선수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남자 선수단이다. 선수단은

사직실내체육관 소프트테니스장을 주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초읍동 소재 합숙소에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선수단은 전국체전과 대통령기, 국무총리기 등 전국 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자들로 구성돼 창단 첫해부터 성과를 기대할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의 지자체 소속 소프트테니스팀은 사하구가 1992년부터 운영한 여자팀이 유일하며, 남자팀은 부산진구가 처음이다.

부산진구는 소프트테니스가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생활체육인 만큼 주민에게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선수단의 동호인 방문 지도를 통해 지역 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부산진구 소프트

테니스팀이 우리 구를 대표하는 전문체육팀으로서 전국 무대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팀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과 체육지원계(605-4092)

산불조심! 산과의 약속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취사·야영·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 원 이하 과태료

busanjinin 공원녹지과(☎051-605-4542)